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79호 || 2023년 7월 20일

우리사회 '다양성' 및 '포용성' 평가

■ '차별' 관련 국민의식

- _ 국민들, 대체로 우리사회 '차별적'이라 생각
- _ 2030세대 : 남성 보다 여성의 '차별' 동의도 높아
- _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차별' 동의도 높아
- _ 이념별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보수층 동의도 소폭 높아

■ 대상별 '포용성' 평가

- _ 전반적으로 포용도 낮고, 특히 '가족' 포용도 낮아
- _ '직장동료' 가능, 2030세대 : 20대 포용도 더 높아
- _ '직장동료' 가능, 50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
- _ '직장동료' 가능, 블루칼라 가장 낮아
- _ '가족(결혼)' 가능, 2030세대 : 여자 20대 가장 포용적
- _ '가족(결혼)' 가능, 60대이상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
- _ '가족(결혼)' 가능, 학생·자영업 높고 블루칼라 낮아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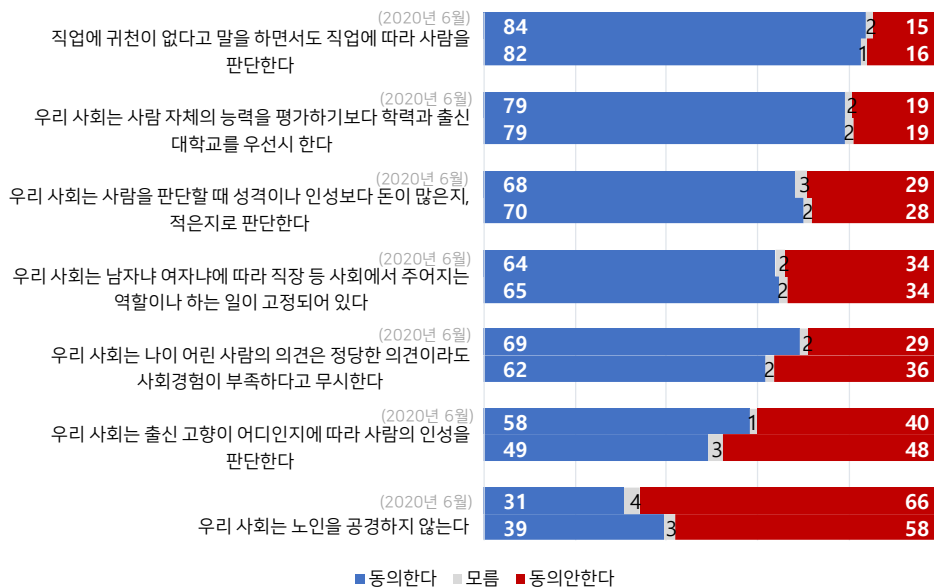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차별' 관련 국민의식

국민들, 대체로 우리사회 '차별적'이라 생각

-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사회라기보다, 차별적인 폐쇄 사회라는 생각이 뚜렷함
-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차별은 '직업'(82%)이고, 다음은 '학벌'(79%), '돈'(70%), '성'(65%), '나이'(62%) 순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각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응답받은 결과임
- 한편, '동의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은 차별은 '노인'(39%)이고 다음은 '고향'(49%)으로 조사됨
-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고향'과 '노인'에 대한 동의도가 낮아짐
 - '고향' 2020년 6월, '동의한다 58% vs 동의안한다 40%' → '동의한다 49% vs 동의안한다 48%'
 - '노인' 2020년 6월, '동의한다 31% vs 동의안한다 66%' → '동의한다 39% vs 동의안한다 58%'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0.06.07/2023.07.0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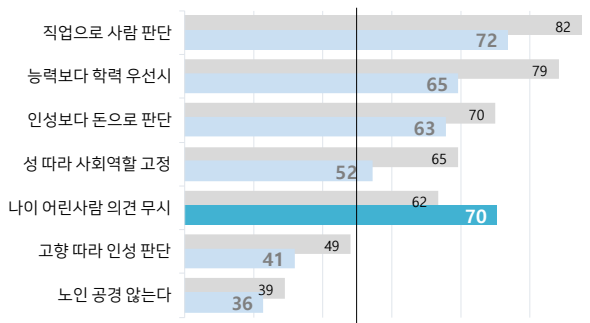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은 다방면에 걸쳐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로 요약됨
 - : 또한, 2020년 조사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차별'이 현 시기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일상화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 '차별'은 사람을 구분 지어 일종의 폐쇄적인 '계급사회'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상임
 - : 조사에서 보듯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사람을 직업, 학벌, 돈, 성, 나이 등에 따라 등급(계급)을 매기고, 상위 등급(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사회라고 인식함
 - : 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개개인의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사회로 평가하는 것임
- ☑ 국민들의 이러한 시각은 우리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궤를 같이함
 - : 국민 중 71%는 우리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함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023년 3월 사회지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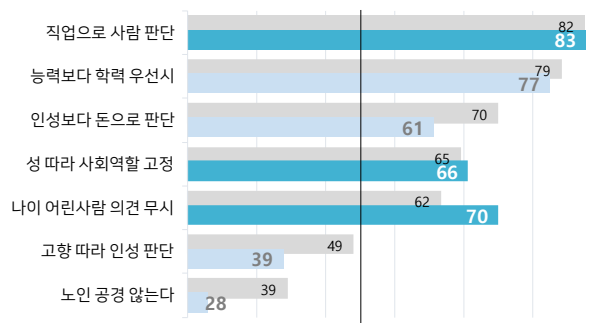
□ 2030세대 : 남성보다 여성의 '차별' 동의도 높아

-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국민전체와 동일하게 직업, 학별, 돈, 성, 나이 등에 대한 '차별' 동의도가 50%를 넘음
- 다만, 동의 정도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도가 높은 차이를 나타냄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남자 2030세대는 거의 모든 주장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데 비해, 여자 2030세대는 국민 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경우가 상당함
 - 남자 2030세대의 경우 국민 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한 것은 남자 20대의 '나이' 주장 하나임
 - 여자 2030세대는 '직업', '성', '나이'가 국민 전체보다 동의도가 높고, 여자 30대는 여기에 '고향'까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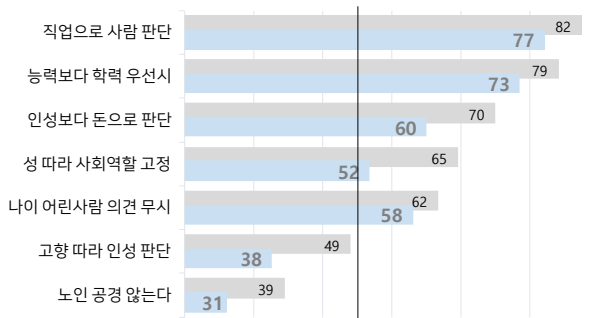
20대 남자,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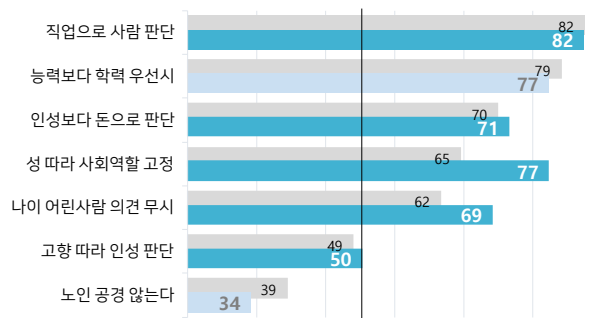
20대 여자,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30대 남자,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30대 여자,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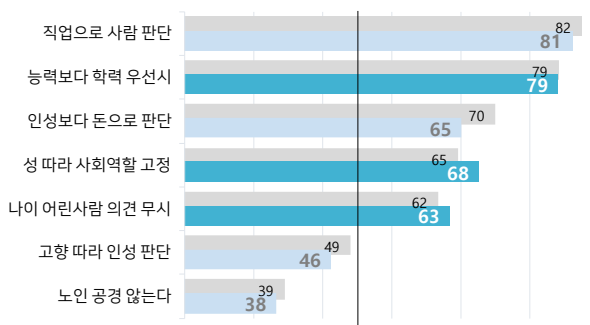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여 2030세대 모두 우리사회가 '차별 사회'라는 인식이 뚜렷함
 - : 2030세대의 유행어 중 하나인 '이생망(이번생은 망했어)'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부의 대물림' 현상에 좌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차별 사회'라는 인식이 남자 2030세대보다 여자 2030세대가 더 강한데, 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차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토록 한 것으로 분석됨
 - : 이번 조사에서도 '성' 차별 동의도를 보면 남자 2030세대는 공히 52%인데 비해, 여자 2030세대는 각각 66%, 77%를 기록함
 - : '성' 차별 지표 중 하나인 '여성 관리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6.3%로 OECD 평균 33.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꼴찌에서 두번째임(자료: OECD, 2021년 기준)
 - : 참고로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과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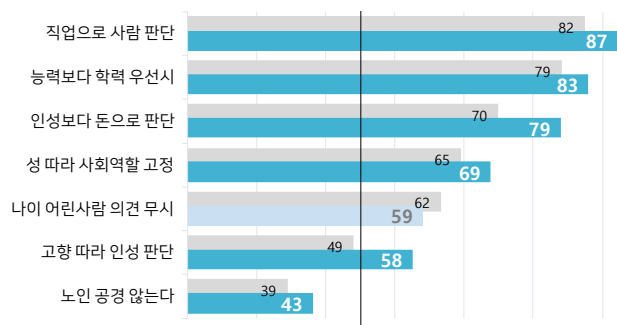
□ 4060세대, 연령 높을수록 '차별' 동의도 높아

- 4060세대 역시 '차별'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대부분에 걸쳐 50%를 상회한 가운데,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50%를 넘는 '차별' 주장이 많아짐
 - 40대는 '고향'과 '노인'의 경우 '차별' 동의도가 50%를 넘지 않았으나, 50대는 '고향'이 포함되고, 60대이상은 '고향'과 '노인'까지 50%를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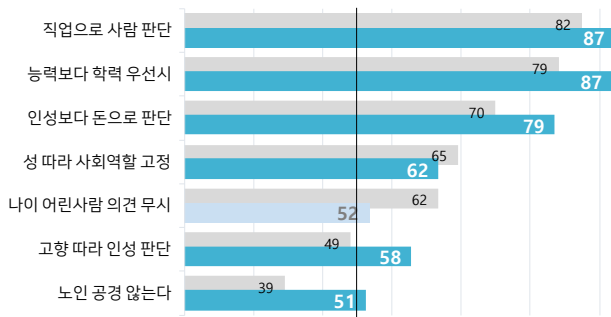
40대,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50대,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60대이상, '차별' 관련 주장별 동의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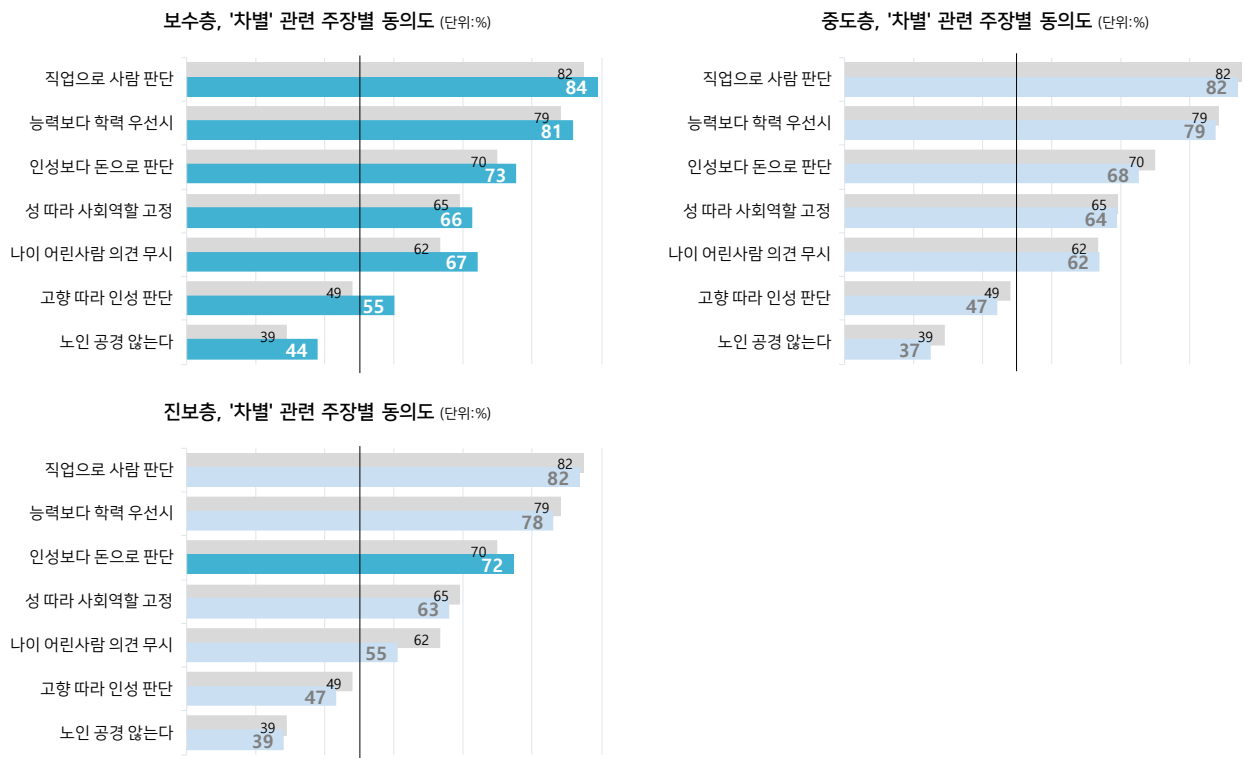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여 2030세대에 이어 4060세대도 우리사회가 '차별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음
 - : 성/연령을 떠나 국민 대다수는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사회라기보다, 차별적인 폐쇄 사회라고 인식함
- ☑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사회'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이른바 '계층상승 사다리'를 올라탄 경험이 있는 5060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5060세대는 1970~80년대의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계층상승'을 이뤄낸 것을 일상적으로 목도한 세대임
 - : 하지만 최근의 한국사회는 '계층상승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함에 따라 '차별' 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이와 관련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크게 감소함
- ☑ 한편, 5060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고향'에 대한 '차별' 동의도가 50%를 상회함
 - : 이 역시 1970~80년대의 사회경험인 '지역차별'을 실제로 목도한 결과로 보임
 - : 이에 비해 2040세대의 동의도는 50% 미만으로, 그나마 우리사회에서 '고향'에 따른 '차별'은 완화된 것으로 보임

□ 이념별 큰 차이 없는 가운데, 보수층 동의도 소폭 높아

-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차별'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국민전체와 거의 동일하고, 그 차이가 적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층이 국민 전체보다 동의도가 소폭 높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소폭 낮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보수층은 '고향'에 대한 동의도가 50%를 넘는 차이를 나타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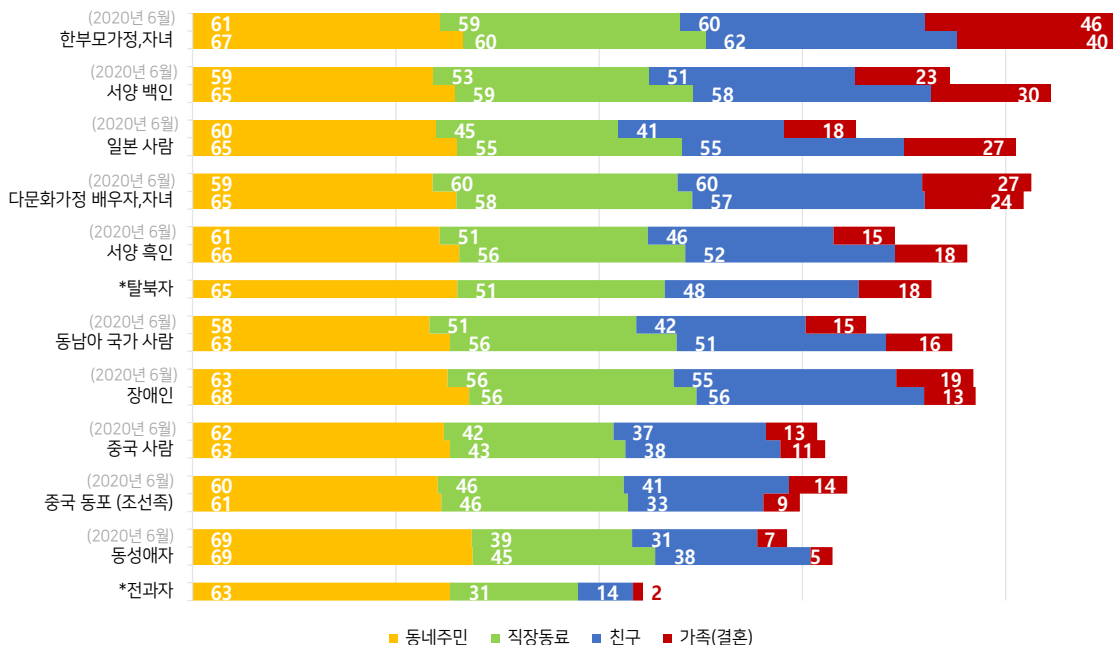
- ☑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은 이념을 떠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 그만큼 '차별'이 우리사회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념을 떠나 동일한 모습임
- ☑ 이러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는 필연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우리)'와 '너(그들)'를 구분 짓는 행태를 확산 시키게 된다는 지적임
 - : 이번 조사에서 다른 직업, 학벌, 돈, 성, 나이, 고향, 노인 외에도 '나(우리)'와 다른 '너(그들)'의 차이를 찾아내어 구분 짓는 데 주력하게 된다는 것임
 - : 예를 들어 '이념', '지지 정당', '거주 지역', '집 형태', '차종', '취미', 'MBTI'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찾아내 구분 짓고 편을 가르는데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분주한 상황임
- ☑ 결과적으로 한국사회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낮아지고, 개인을 우선하는 '각자도생' 사회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적 지적임
 - : 개인의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국민 중 53%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간이다' 36%, '사회전체 이익' 11%로 나타남(케이스탯, 2023년 7월 2일 조사결과)
 - :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금개혁' 등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를 이루기 힘들 것임

대상별 '포용성' 평가

□ 전반적으로 포용도 낮고, 특히 '가족' 포용도 낮아

- 한국 사회에서 배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대상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포용성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포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선생님께서서는 아래 각각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의향이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 후 아래 4개 항목을 제시함
 - 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괜찮다
 - ②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일해도 괜찮다,
 - ③ 상대방이 친구가 되기 원하면 친구돼도 괜찮다
 - ④ 우리 가족과(또는 내가) 결혼해서 가족돼도 괜찮다
- 가장 포용도가 높은 대상은 ‘한부모 가정, 자녀’이고, 다음은 ‘서양 백인’, ‘일본 사람’ 등임
 - 포용도가 가장 낮은 대상은 ‘전과자’이고, 다음은 ‘동성애자’, ‘중국 동포(조선족)’ 순임
-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포용도가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사람’과 ‘서양 백인’, ‘서양 흑인’에 대한 포용도가 많이 상승함
 - 이에 비해 ‘중국 동포(조선족)’은 오히려 포용도가 하락함
 - ‘탈북자’와 ‘전과자’는 이번 2023년 조사에서 추가되어 이전 조사결과가 없음

대상별 포용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0.06.07/2023.07.02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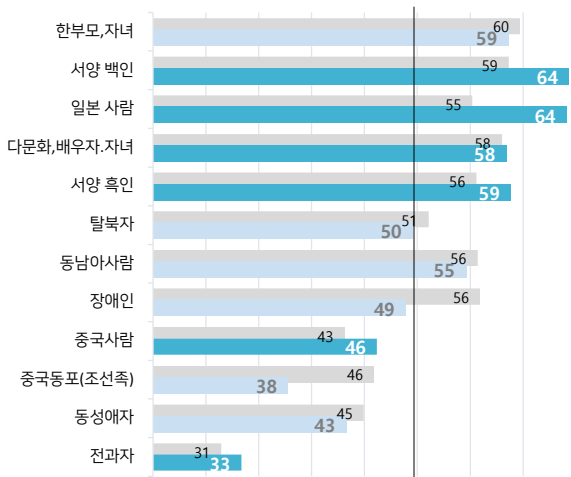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배제 또는 혐오의 대상에 대해 ‘동네 주민’까지는 비교적 인정할 수 있지만 ‘직장동료’가 되거나 ‘친구’가 되는 것에 신중하며, ‘가족’이 되는 것에는 부정적임
- : 가장 포용도가 높은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이 되는 것은 40%만 동의함
- : 참고로 ‘한부모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6.9%(약 151만 가구)로 집계됨(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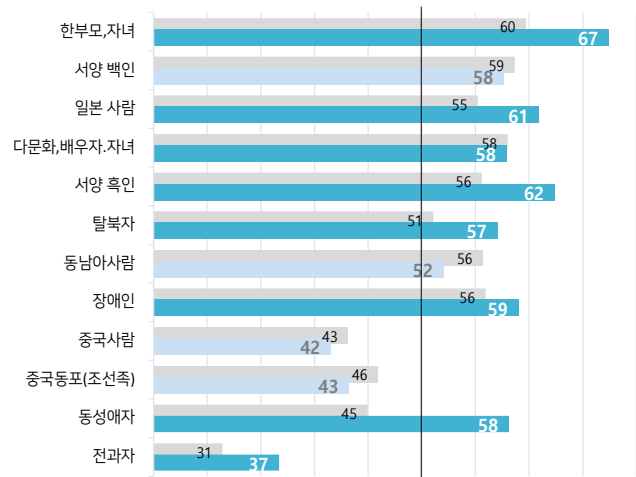
□ '직장동료' 가능, 2030세대 : 20대 포용도 더 높아

- '직장동료' 가능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가능도가 50%를 넘은 대상은 '한부모가정, 자녀', '서양 백인', '일본 사람', '다문화가정, 배우자, 자녀', '서양 흑인', '탈북자', '동남아사람', '장애인' 등임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가능도가 50%를 넘지 못한 대상은 '중국사람', '중국동포(조선족)', '전과자' 등이며, '동성애자'의 경우 남자 2030세대는 50%미만인데 비해 여자 2030세대는 50%를 상회함
- 또한 전반적으로 20대가 30대보다 소폭 높은 가능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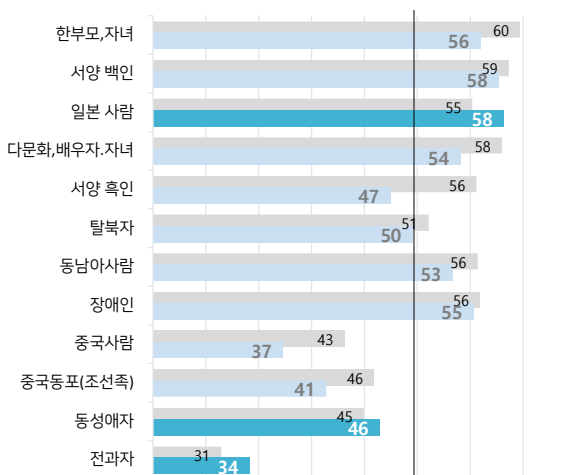
20대 남자, '직장 동료'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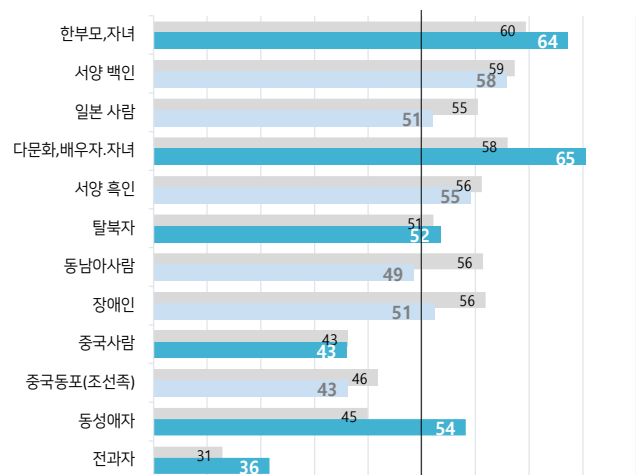
20대 여자, '직장 동료' 가능 (단위:%)



30대 남자, '직장 동료' 가능 (단위:%)



30대 여자, '직장 동료'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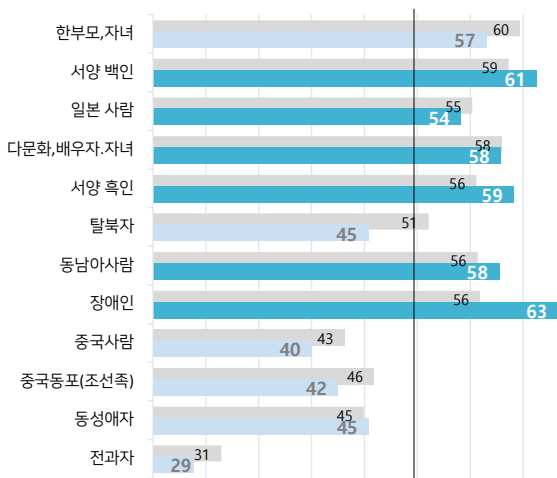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대는 모든 성/연령에 걸쳐 가장 포용도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70%를 넘지 못함
: 즉, 가장 포용도가 높은 대상인 '한부모가정, 자녀'가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10명 중 3명은 부정적임
- ☑ 한편, '동성애자'의 경우 남자 2030세대보다 여자 2030세대의 가능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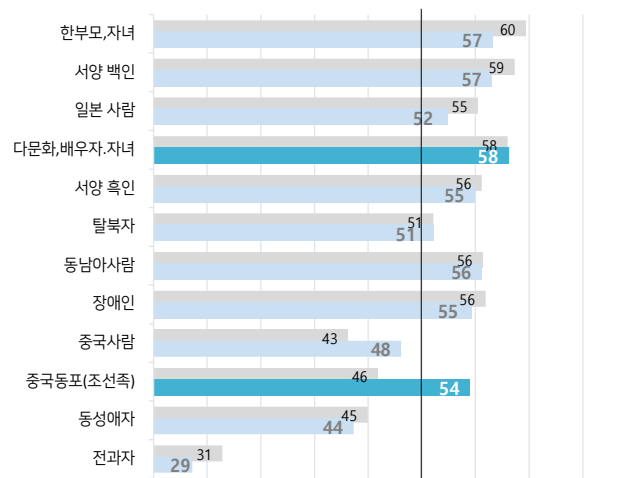
□ '직장동료' 가능, 50대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

- 4060세대의 대상별 '직장동료' 가능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50세대는 낮고 60대 이상이 높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특히 50대의 가능도는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음
- 다만, '중국동포(조선족)'의 경우 2040세대에서는 50%를 넘지 못한 데 비해 5060세대는 50%를 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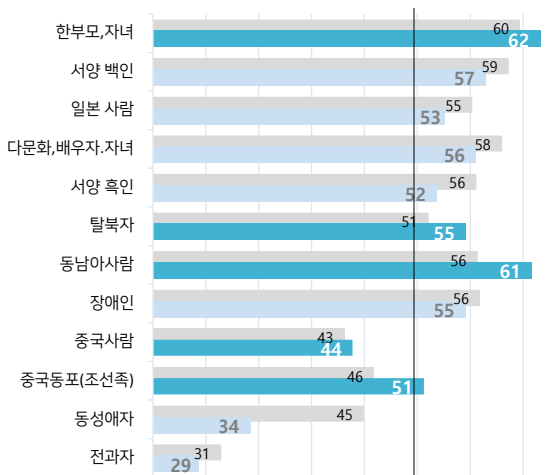
40대, '직장 동료' 가능 (단위: %)



50대, '직장 동료' 가능 (단위: %)



60대 이상, '직장 동료' 가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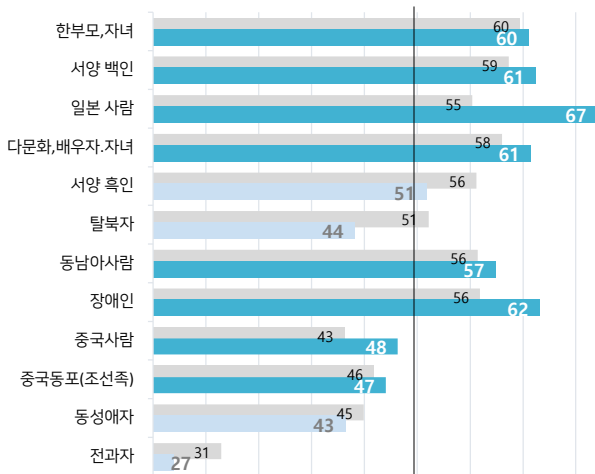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성/연령별 '직장동료' 가능도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20대 > 30대 > 40대 > 60대 이상 > 50대로 나타남
 - : 즉, 20대의 포용도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포용도가 악화됨(50대 예외)
- ☑ 그러나 가장 높은 20대도 그 가능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포용성이 낮음
 - : '나(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까다롭다는 의미임
 - : 이는 한국사회의 폐쇄성이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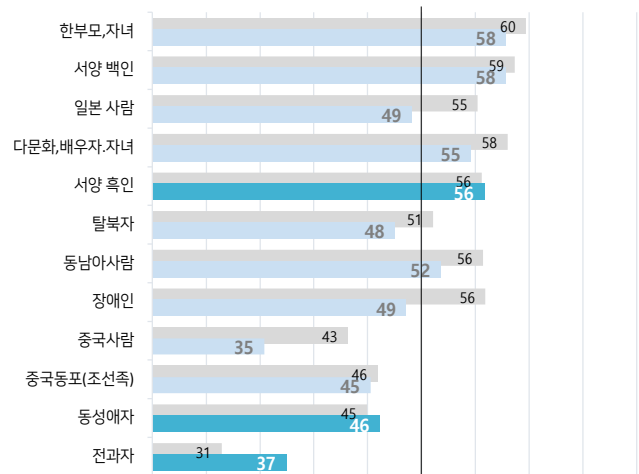
□ '직장동료' 가능, 블루칼라 가장 낮아

- 직업별로 '직장동료' 가능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블루칼라 계층이 가장 낮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이에 비해 학생층의 가능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화이트칼라, 자영업자 순임
 - 학생층은 '동성애자' 가능도가 50%를 상회하고, '장애인'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정 반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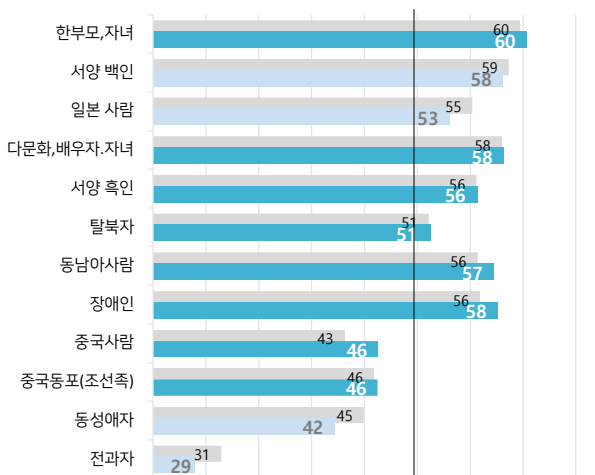
자영업, '직장 동료'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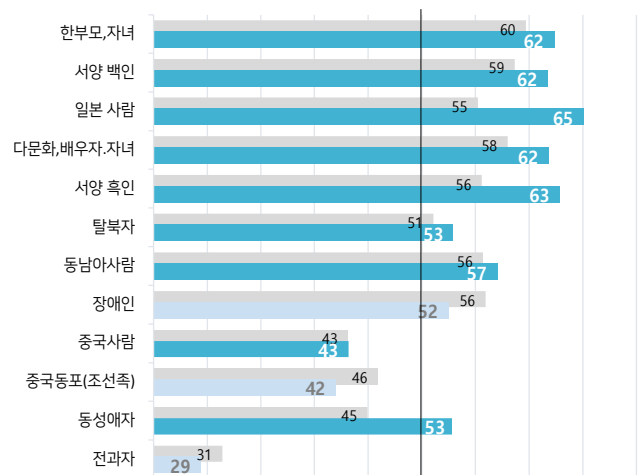
블루칼라, '직장 동료' 가능 (단위:%)



화이트칼라, '직장 동료' 가능 (단위:%)



학생, '직장 동료'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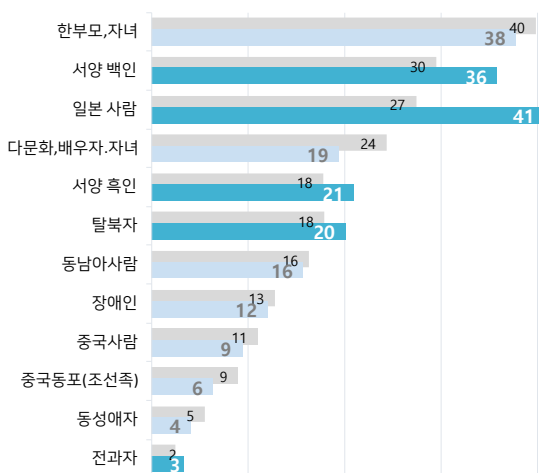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까지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임
 -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국민들이 외국인과 '직장동료'가 되는것을 꺼리고 있음
- ☑ 또한 블루칼라 종사자의 가능도가 가장 낮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 ▶ 블루칼라 종사자의 일자리는 이미 '동남아 사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한데, 정작 블루칼라 종사자의 가능도가 낮다는 것은 적지 않은 마찰과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임(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임금차별 등)
 - ▶ 학생층과 화이트칼라는 아직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화이트칼라 직군까지 확대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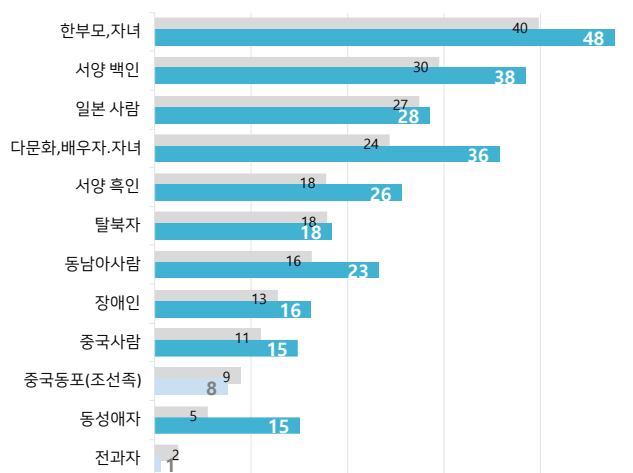
□ '가족(결혼)' 가능, 2030세대 : 여자 20대 가장 포용적

- '가족(결혼)' 가능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모든 대상의 가능도가 50%를 넘지 못한 가운데 '한부모가정, 자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남자 20대는 예외적으로 '일본 사람'이 가장 높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또한 전반적으로 여자 20대의 가능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남자 20대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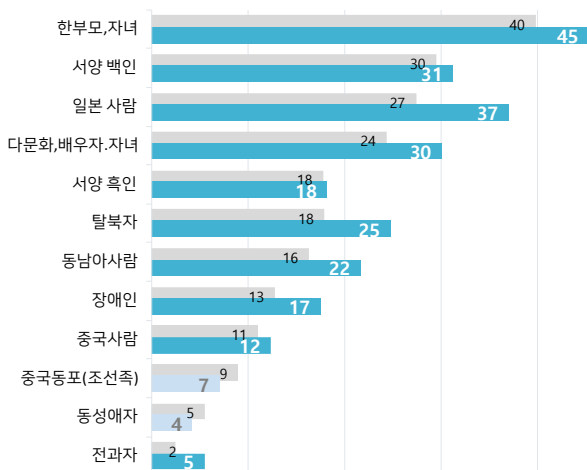
20대 남자, '가족(결혼)'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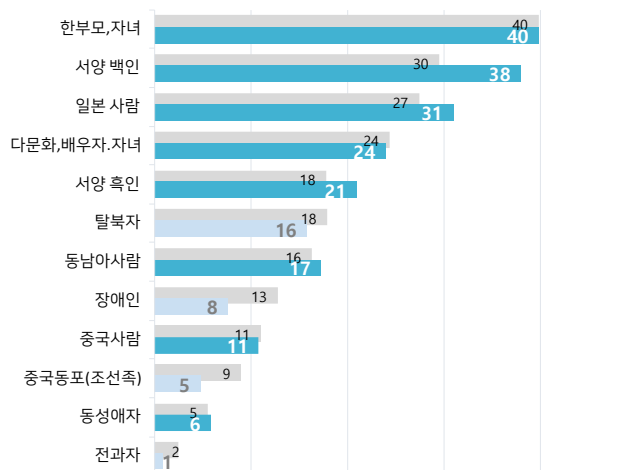
20대 여자, '가족(결혼)' 가능 (단위:%)



30대 남자, '가족(결혼)' 가능 (단위:%)



30대 여자, '가족(결혼)'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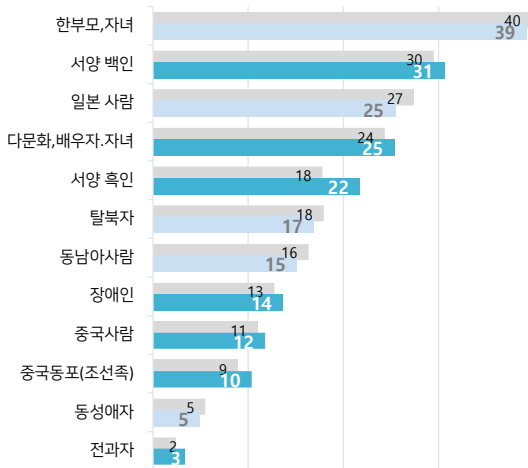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직장동료'가 되는 것과 '가족(결혼)'이 되는 것을 비교하면, 여자 20대는 비교적 일관되게 높은 포용도를 보이는 데 비해, 남자 20대는 급격히 낮아짐
 - : 남자 20대가 상대적으로 '가족(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임
- ☑ 30대는 여자 20대보다 가능도가 낮고, 남자 20대보다는 높음
 - : 그러면서도 30대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 30대가 조금 더 높은 포용도를 나타냄
 - : 여자 30대는 남자 20대와 비슷하게 '가족(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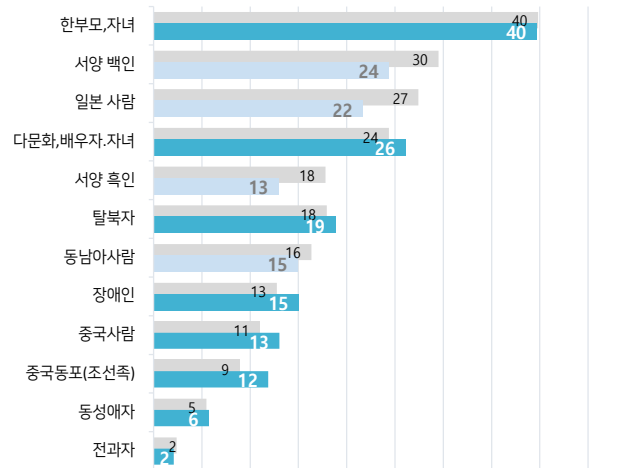
□ '가족(결혼)' 가능, 60대이상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아

- 4060세대의 대상별 '가족(결혼)' 가능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4050세대는 비슷하고 60대이상은 낮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특히 60대이상의 가능도는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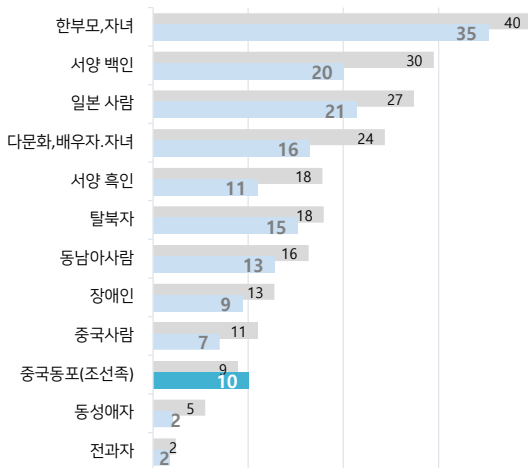
40대, '가족(결혼)' 가능 (단위:%)



50대, '가족(결혼)' 가능 (단위:%)



60대이상, '가족(결혼)'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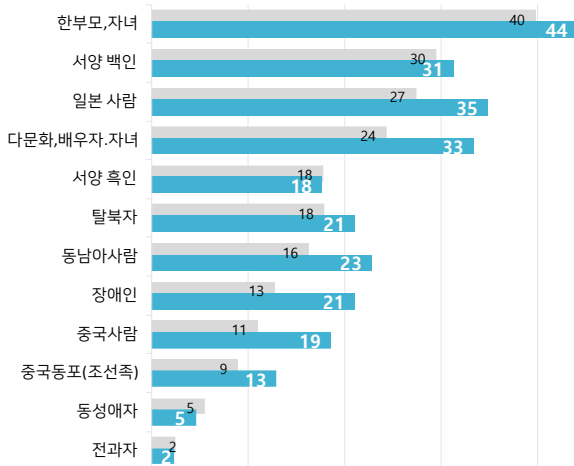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성/연령별 '가족(결혼)' 가능도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여자 20대 > 남자 30대 > 여자 30대 > 남자 20대·4050세대 > 60대이상 순임
 - : 즉, 여자 20대의 포용도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짐(남자 20대는 예외)
 - : 이는 앞서의 '직장동료'와 비슷한 흐름으로, 연령에 비례해 포용도가 낮은 양상임
 - : 과거에 비해 외국인의 한국 거주가 많아지고, 젊은 층의 외국 여행도 활발해진 것이 젊은 층의 포용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우리국민의 '가족(결혼)' 가능도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한국사회의 폐쇄성이 가장 강한 곳은 '가족'으로 봐도 무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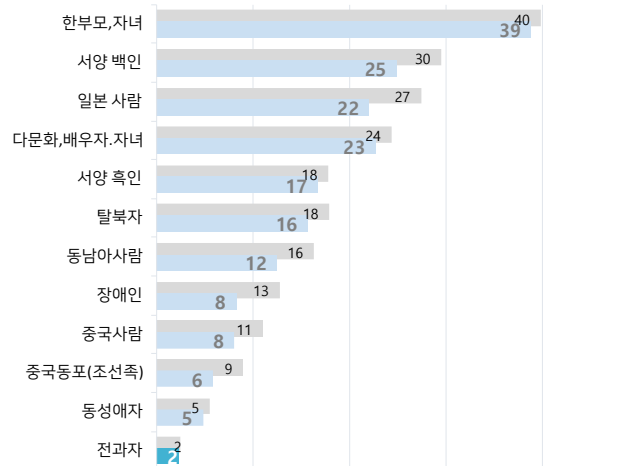
□ '가족(결혼)' 가능, 학생·자영업 높고 블루칼라 낮아

- 직업별로 '가족(결혼)' 가능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생·자영업 종사자는 높고, 블루칼라 계층은 낮음
 - 그림에서 회색은 국민전체 수치이고 이보다 높으면 짙은 푸른색, 낮으면 옅은색임. 검은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가능도는 중간적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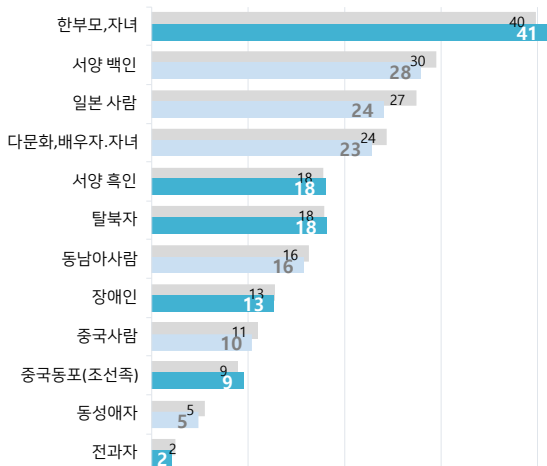
자영업, '가족(결혼)' 가능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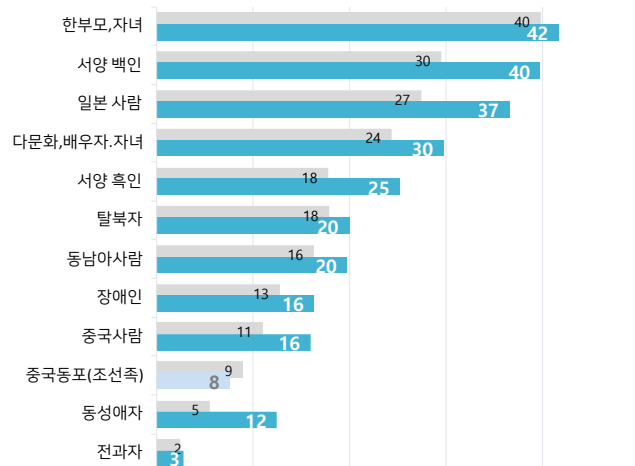
블루칼라, '가족(결혼)' 가능 (단위:%)



화이트칼라, '가족(결혼)' 가능 (단위:%)



학생, '가족(결혼)' 가능 (단위:%)



Kstat Point

- ☑ 블루칼라 종사자는 '직장동료'에 이어 '가족(결혼)' 가능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아 사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비교적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위기감이 '가족(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임
 - ☑ 한편,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직장동료'가 되는 것은 비교적 용인할 수 있지만, '가족(결혼)'이 되는 것은 매우 부정적임
 - : '한부모가정,자녀'만 41%를 기록했을 뿐 다른 대상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 ☑ 이렇듯 국민들이 '가족(결혼)'에 대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으로 보임
 - : 우리 국민은 평소 살면서 '내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78호 『한국인 '내 삶' 중요성과 '현재' 만족도 분석』 참고)
- ☑ 결론적으로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포용도는 매우 낮고, '가족'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각자도생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0호, 8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0호와 81호는

각각 8월 17일(목요일), 3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8월 사회지표는 8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